

번호: OP-A-002					
제 목	대사증후군 진단 항목으로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허리둘레의 새로운 기준제시 Waist Circumference for the Diagnosis of Metabolic Syndrome in a Rural Adult Population. : CMS(Chungjoo Metabolic Syndrome) study				
저 자 및 소 속	임신영1), 박용문1), 권혁상2), 임동준2), 윤건호2), 이원철1), 손호영2), 노재홍3), 안명숙3), 김동석3)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내분비내과, 3)충주시 보건소 Sun Young Lim 1), Yong Moon Park 1), Hyuk Sang Kwon 2), Dong Jun Im 2), Kun Ho Yoon 2), Won Chul Lee 1), Ho Young Son 2), Jae Hong No 3), Myung Sook Ahn 3), Dong Suk Kim 3) 1)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3)Chungjoo Public Health Center				
분 야	역 학 [대사증후군]	발 표 자	임선영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허리둘레는 내장지방과의 상관성이 높고 측정이 간편하여 대사증후군 진단 항목의 하나인 중심성 비만을 대표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 2005년 IDF(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에서는 허리둘레를 필수 항목으로 하는 대사증후군의 새로운 진단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한국인에게 적합한 허리둘레의 기준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허리둘레의 기준치 설정을 위해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허리둘레에 대한 임계점(cut-off point)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중심적인 병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사증후군 진단 항목으로서의 허리둘레에 대한 적절한 기준치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p> <p>방법: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충주시 읍면 지역의 40세 이상 성인, 총 8,395명 (남자:3436명, 여자:4959명) 중 공복 insulin측정 자료가 누락된 1,342명을 제외한 7,053명(남자:2867명, 여자:418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슐린 민감도와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HOMA(Homeostatic model assessment)model을 사용하였으며, HOMA-IR index의 상위 사사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인슐린저항성이 있다고 하였다. 인슐린저항성을 반영하는 허리둘레의 임계점은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curve analysis를 통해 확인하였다.</p> <p>결과: ROC분석에 따라 인슐린저항성을 반영하는 허리둘레의 cut-off point는 남성에서 85.6cm(민감도 67.3%, 특이도 61.5%)였고, 여성에서는 83.1cm(민감도 61.9%, 특이도 65.3%)였다. 남녀 각각에서 나이의 중앙값으로 연령을 층화한 후 분석한 결과 남성에서는 63세 미만인 경우 85.6cm, 63세 이상에서는 85.7cm, 여성의 경우 64세 미만에서 82.7cm, 64세 이상에서 84.5cm였다.</p> <p>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아시아 태평양 기준(남자:90cm, 여자:80cm)과 비교해 볼 때 남자에서는 85.6cm로 더 낮은 기준이, 여자에서는 83.1cm로 좀 더 높은 기준이 제시되었다. 또한 연령으로 층화하였을 때 여성에서 그 기준치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으로서의 허리둘레의 기준치 확립을 위해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성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진단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p>					